

읽고 쓰는 자의 오답노트, 그 미래형 질문지

—이충일 서평집 『통증의 맛』(창비, 2019)을 읽고

김윤정*

1. 읽고 쓰는 자, 비평가라는 이름

일본 작가 고토 메이세이는 “왜 소설을 쓰는가?”라고 자문하고는 “소설을 읽어버렸으니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사키 아타루는 ‘읽어버렸으므로 쓰는 것’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술회한다.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을 때 우리는 ‘도무지’라는 부사의 힘을 빌려 표현한다. 읽어버렸으므로 도무지 쓰지 않고는 배길 도리가 없다는 고백. 이때 읽는 것에서 쓰는 것으로 옮겨가는 변증법의 지대엔 광기어린 도박과 같은 위험 또는 고독한 싸움이 놓여있으니, 읽고 쓰는 행위에 깃든 혁명의 가능성 때문이다. 책을 읽고 쓰는 행위가 가진 혁명의 가능성을 논하는 사사키 아타루의 예민한 감각은 둔탁해진 이성을 찌르는 칼날처럼 날카롭다.¹

그 쓰라린 마음을 채근하며 열심을 내보지만 읽고 쓰는 행위가 완성

* 인하대 강사, 2chakim@hanmail.net

1 사사키 아타루,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자음과 모음, 2012, 104~105면.

되기까지 돌파해야 할 고독의 시간은 혼자만의 것.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나아갈 용기는 늘 구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 평론을 남의 글을 숙주 삼아 쓰는 글로 표현하거나 남의 글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필자의 태도는 용기 충전을 위한 자신만의 방도일 터이다. 그렇게 겸허한 용기를 발판으로 세상에 나온 이충일의 첫 평론집 『통증의 맛』은 조심스러운 탐문자의 글이다. 탐문자의 조심스러움은 특유의 살가운 문체를 완성한다. 신선한 비유를 활용하는 친절한 어법은 자칫 사변적으로 경사될 수 있는 비평글의 이해도를 단숨에 끌어올린다. 또 정이 가는 우리말 표현과 입말체의 적절한 사용은 글에 윤기를 더하며 이충일 표라고 할 만한 상냥하고 부드러운 문체를 탄생시켰다. 한편, 『통증의 맛』은 ‘새로운 어린이문학’을 상상하는 질문자의 글이기도 하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어린이문학은 무엇인가? 좋은 어린이문학은 무엇인가? 필자는 거듭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지금 여기’를 전진하게 하는 대답을 찾고자 고심한다. 그래서 그의 첫 평론집은 질문지이자 답변지이며, 오랜 고심의 흔적들이다.

『통증의 맛』에는 우리 아동청소년문학을 ‘응시’하는 필자의 자세가 또렷하게 음각되어 있다. 그것이 마치 탐문자 또는 질문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도 되는 듯 말이다.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 집중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며 깊이 살피는 일, ‘응시’는 대상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난망할 터. 이 평론집을 논하는데 있어서 아동청소년문학에 대한 필자의 진정성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한 곳을 오래도록 응시하며 읽고 쓰는 힘(그것은 분명 힘이다), 이 글은 그 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2. 조심스러운 탐문자의 매뉴얼

서론이 길어진 탓에 다소 늦은 소개가 되었지만 평론집 『통증의 맛』의 내용 구성에 대한 설명을 빼놓을 수는 없겠다. 이충일의 평론집 『통증의 맛』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24편의 글을 담고 있다. 제1부는 우리 아동청소년문학이 지속적으로 탐색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모아 구성했다. 「민주주의와 시민, 그 모순에 대한 문답」 「어린이 독자라는 비평적 과제」 「젠더로 풀어 본 교과서 속 문학 이야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어린이의 일상을 구획하는 요소와 그에 대한 문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글들이다. 제2부는 시대상과 장르론을 다룬 글이 주를 이루며 작가론, 작품론도 여기에 포함 되어 있다. 「청소년 가족서사에 던지는 윤리적 질문」 「2000년대 다문화동화가 남긴 과제」 「아동 추리물을 탐문하는 세 가지 단서」 등이 우선적으로 떠오른다. 그 외 권정생과 임길택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 위에서 솟아난 두 편의 글은 분석을 뛰어넘는 깊은 여운을 남긴다. 제3부는 그간 글 공간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서평들을 꺼내놓았다.

2008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조심스러운 탐문자가 남긴 글 자취는 아동문학의 매뉴얼을 마련해보려는 시도가 남긴 흔적이다. 필자는 「어린이 독자라는 비평적 과제」에서 비평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린이에게 또는 어른에게, 넘어야 할 안전지대가 어디이며, 기꺼이 배반해야 할 가치들은 무엇인지를 최소한이라도 제시해 놓은 매뉴얼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 독자반응 비평에 기초한 글의 특성상 독자로서의 어린이를 중심에 두고 전개된 논의는 자연스럽게 비평의 역할을 확장시킨다. 그런데 필자가 말하는 매뉴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린이문학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문자답의 기록지라 할 수 있다. 그는 서문에서 ‘어린이’와 ‘문학’이라는 난해한 조합이 한동안 풀지 못한 숙제처럼 여겨졌다고 고백하고 있다. 필자는 어린이를 위한 문학, 그러한 문학을 실천하는 교육자로서의 설렘도 잠시, 무언가 잘못 되었음 감지한다. 저 목적이 지나치게 또렷한 표현은 ‘無用의 用’이어야 할 ‘문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고민이 깊어진 시점이 바로 이때일 게다. 그러고는 ‘어린이를 위한 문학’을 ‘어린이문학’으로 돌려 세우기 위한 탐문을 조심스럽게 시작했을 터. 필자는 ‘어린이’를 그리고 ‘어린이문학’을 탐문하기 시작한다.

필자는 ‘어린이’를 ‘무지개떡’에 비유한다. 어린이는 무지개떡의 상이한 단면 이상으로 다양한 면모를 뽐내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야말로 불확정적인 존재라는 설명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이의 불확실성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의된다. 이와 같은 어린이의 특질에 공감하는 바, 필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는 이유는 그가 현장성으로 충만한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어린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팔팔하게 살아서 육박해오는 존재다. 따라서 종속적 수식관계에서 벗어난 ‘어린이문학’을 상상하는 일은 연구 과제이자 절실한 실천 과제인 터. 필자는 ‘어린이’와 ‘문학’의 조우를 탐문하는 일로 돌파구를 찾는다.

‘어린이’와 ‘문학’의 조우를 탐문하는데 있어서 문학적 가치와 독자의 선택이라는 두 향의 엇갈림은 피할 수 없는 논쟁거리이다. 앞서 거론한 「어린이 독자라는 비평적 과제」는 독자로서의 ‘어린이’에 방점을 찍은 글이다. 어린이가 추구하는 재미의 목록을 채워나간 글은, 결론에 이르러 아이들이 원하는 바에 주목하지 않음으로 어른의 욕망에 충실한 글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다. 「아동추리물을 탐문하는 세 가지 단서」 역시 같

은 문제의식에서 발로한 글이다. 이 글은 추리물이 재미를 건사하는 힘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문학 쪽에 더 많은 추를 올려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때의 재미는 필경 같은 글에서 일컬은 문학적 재미와 관련이 있을 터인데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으로 남겨둔다. 다행히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동추리물이 인과율에 간혀 어린이의 삶에 대한 감도를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하고, 현실과 팽팽하게 씨름하기를 요구하는 결론은 문학적 재미의 추구와 무관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두 편의 글은 각각 ‘어린이’와 ‘문학’ 서로 다른 항에 무게 추를 두고 있다. 시기적으로 「아동추리물을 탐문하는 세 가지 단서」가 앞선 글이므로 ‘문학’에서 ‘어린이’로 재미의 추가 기울었다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순 비교는 그리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본격문학과 장르문학은 엄연히 다르고, 각각 추구하는 재미 역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오래도록 응시하며 대답을 구해야 할 일. 따지고 보면 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탐문이 시작된 지점이 바로 여기가 아니던가. 어린이가 원하는 재미와 문학적 재미의 점점 지대를 찾으려는 노력은 결국 ‘어린이’와 ‘문학’의 조우라는 궁극적 지향을 향해 있으니 말이다. 벽돌 한 장만큼의 변화라도 간절한 이때, 읽고 쓰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탐문자의 수고가 반가울 뿐. 앞으로 조심스러운 탐문자의 매뉴얼에 어떤 목록이 추가될지 기대하며 지켜볼 일이다.

3. 끈질기게 질문하고 오래도록 바라보다

‘어린이’와 ‘문학’의 조우는 ‘어린이문학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방법론적인 측면의 고민으로 필자가 쓰려는 매뉴얼의 각론에 해당한다. 매뉴얼의 총론 그중에서도 가장 앞자리에 놓여야 하는 것은 ‘어린이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일 것이다. ‘어린이문학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필시 ‘어린이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질문의 대답을 구하기 위한 선행 질문으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다. 그는 진부한 질문인 것 같다며 겸사를 하지만, ‘어린이문학’의 본령이 ‘문학’에 있음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기에 그것은 오히려 본질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필자의 인식은 ‘어린이를 위한 문학’에 거부감을 느끼던 그때 이미 드러난다. ‘쓸모없음’으로 ‘진짜 쓸모’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양식으로서의 문학. 필자가 제시하는 ‘문학의 윤리’라는 준거틀은 문학의 ‘진짜 쓸모’가 어디에 있는지 오롯이 보여준다. 「통증의 맛」(2015)에서 필자는 “도덕이나 사회윤리가 말 잘 듣는 순응적 존재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문학의 윤리는 참과 거짓의 규정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존재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⁷⁴면) ‘문학 윤리학’에 대한 언급은 이보다 몇 해 전 글인 「청소년 가족서사에 던지는 윤리학적 질문」(2012)에서 ‘문학 윤리학적 상상력’(136면)이라는 표현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것은 정해진 순서를 의심하고 부정하고 뒤집어 보는 것이 문학의 윤리라는 서영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세속적인 의미의 윤리가 문학과 만나게 되면 그 의미가 완전히 전복된다는 사실을 적시한다.² ‘당연함’으로 중무장

2 서영채, 「탈이념의 시대의 문학」, 『문학의 윤리』, 문학동네 2005, 22면 참조.

한 세상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문학의 윤리를 삼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문학은 ‘통증의 맛’을 띠게 된다.

그런데 ‘통증의 맛’이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필자는 긴 말 없이 김해원의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사계절, 2015)를 예로 든다. 이 작품은 삼성 반도체 직원의 죽음, 왕따와 자살, 가족해체와 폭력, 성적 비관 자살 등을 다룬 단편집이다. 필자는 이 작품에서 알싸한 통증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작품이 단순한 사건 고발 차원을 넘어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시스템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승인된 작동방식으로서 ‘당연함’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사회 시스템에 맞선다는 것은 사실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니, 아프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과 긍정의 윤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분노와 반항, 상처와 아픔이 일어나는 생생한 지점을 응시”(75면)해야 한다고 필자는 말한다. 그것이 문학의 윤리이기 때문이다. “진정성 있는 분노와 반항을 통해 타자에게 칩거하는 안정된 자아가 아닌, 어기차게 제 길을 떠나는 진정한 주체”(76면)를 만날 수 있는 작품, 그런 작품이라면 필자가 간절히 구하는 ‘어린이문학’의 카테고리 안, 가장 앞자리에 놓일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우리 어린이문학이 그려내는 ‘희망’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 ‘새로운 희망이란 견고한 지평을 뒤흔드는 도전이어야 한다.’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말에 대한 동의(132면)에서부터 짚어가자. 바우만의 지적처럼 견고한 지평을 뒤흔드는 도전은 통증을 유발할 터, 필자는 그 고통을 응시하는 시선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움터 오른다고 말한다. 이때 ‘희망’은 언제나 씨앗이 열매로 이어진다는 낙관론을 말하지 않는다. 어린이문학에서 ‘희망’이란 ‘그러함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지

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낙관적 결말로 희망의 척도를 삼으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관통해 ‘어린이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앞에서 필자는 ‘통증’과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내놓는다. 필자가 ‘어린이문학’을 탐문하는 방법은 다분히 귀납적이다. 그것은 ‘어린이를 위한 문학’이라는 대전제를 버리는 순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읽고 쓰기를 반복한 수많은 낮과 밤들을 보내면서 마침내 만난 좋은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어린이문학’의 모습을 그려나갔을 터. 질문은 어떻게 ‘새로운 우리’를 상상할 것인가라는 미래형 질문이어야 한다고(129면) 밝혔던 바, ‘어린이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필자로 하여금 ‘새로운 어린이문학’을 상상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음에 분명하다. “현실의 무릎이 꺾인 자리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려 온 것이 바로 문학”(30면)이라는 진술은 그렇게 끈질긴 질문과 오랜 응시를 통해 우리에게 도달했다.

4. 갱신의 매뉴얼

글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시점에서 문득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좋은 어린이문학 작품을 귀납적으로 탐문하면 ‘어린이문학’을 규정할 수 있을까?’ 대답은 물론 ‘아니다’이다. 앞서 서론에서 소개한 사사키 아타루는 읽고 쓰는 행위가 가진 혁명성에 천착한다. 혁명성이란 다른 아닌 ‘변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읽고 쓰는 행위는 마치 좋은 질문처럼 ‘새로운 미래’,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필자 역시 서문에서 자신의 첫 평론집인 『통증의 맛』이 거듭되는 질문 사이에서 찾아낸

불완전한 답변들이며, 그 과정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이 읽고, 오래도록 생각하며, 보다 정확히 쓰려고 노력했을 터이다.

『통증의 맛』이 불완전한 답변들을 담은 일종의 오답노트라는 필자의 고백은 겸양의 언사이거니와, 설령 그렇다 해도 나는 기꺼이 그의 오답 노트를 서가의 손이 닿는 위치에 꽂을 요량이다. 읽고 쓰는 자가 내놓은 오답노트는 미래형 질문지와 같다. 필자는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경유해서 도달해야 할 곳은 결국 어떻게 ‘새로운 우리’를 상상할 것인가라는 미래형 질문”(129면)이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마치 이 말은 읽고 쓰는 자 즉 비평가인 자신에게 향한 다짐처럼 읽힌다. 『통증의 맛』이 그려 낸 ‘어린이문학’은 이미 ‘새로운 어린이문학’을 잉태하고 있다. 읽고 쓰는 행위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문학은 새롭게 상상될 뿐 규정될 수는 없다. 읽는 행위는 질문과 다르지 않으며 질문만이 우리를 전진하게 한다. 따라서 읽기를 멈추지 않는 한, 또한 쓰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필자의 매뉴얼은 갱신을 거듭할 터이다.